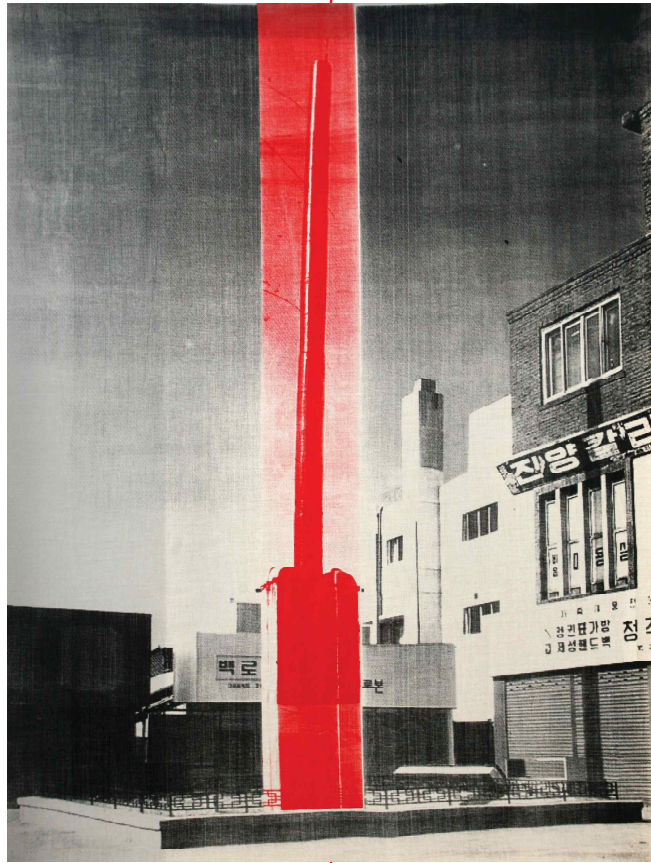


누가 사냥을 하든지 간에 Whoever may h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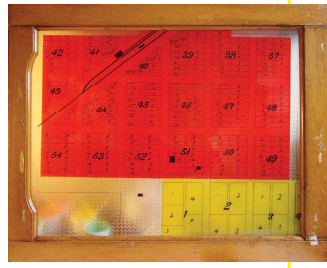
윤하민 개인전

아트 스페이스 플
2012. 5. 8 - 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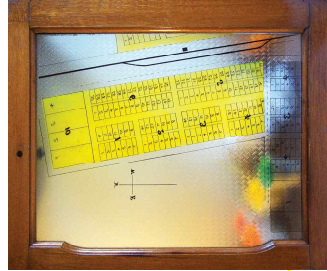
개막 5, 8 화 오후 6시 아트 스페이스 플



국가보물,
2012, 실크스크린, 기번크기



스테인드글라스,
2012, 창문에 유성도포, 기번크기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 전제는 하나를 위하여,
2011, 원본을 확대하고 분해 해서 새롭게 재결합된 함 오조품 옷들, 기번크기



2012년 아트 스페이스 플은 '플 프로젝트' 두 번째 전시로 윤하민(1983년 9. 14)의 개인전 <누가 사냥을 하든지 간에>가 소개됩니다. 작가는 한 동물다큐멘터리에서 "누가 사냥을 하든지 간에 다 같이 먹는다"는 말에 큰 감동을 느껴 이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냥을 하든지 간에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생적 상호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냥을 통해 공생하는 집단은 개인이 집단을, 집단이 개인을 위해 살아 가는 이타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균형을 현대 사회로 본다면, 현대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지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원시시대의 삶을 알기 위해 사냥문화를 분석 틀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사냥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라 아닌 계급, 정치, 경제, 신앙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하민의 사냥은 단순히 소재를 채집하는 것이 아닌, 이상적 사회와 현대사회의 괴리를 표현해 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윤하민의 <스테인드글라스> 시리즈는, 재개발로 인해 간해만 남은 마을을 작가가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작가는 무너진 집해를 사이에서 창문을 주워왔고, 주워 온 창문 위에 지도를 베껴고 예쁜 색으로 칠합니다. 창문에 그려진 지도에는 우리가 사는 공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나타난 공간들은 우리의 것이기도 할과 동시에 남의 것이기도 한 공간들입니다. 또한 재개발로 폐허가 된 공간은 재개발이 완료된 뒤 전까지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여백의 공간이며, 이 활나의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기도 하면서 남의 것이기도 한 여백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윤하민은 골 높은 건물로 채워진 여백의 공간을 아쉬워하며, 이 창문을 주워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냥해온 여백을 위해 창문 위에 지도를 그리고 예쁜 색을 칠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가보물> 시리즈 역시 윤하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여백에 관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소위 국가에 의해 지정된 국가보물이라는 것들도 우리의 것이기도 하면서 남의 것이기도 합니다. 윤하민은 국보이미지들을 국보로 지정된 공간과 아닌 공간으로 나눠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예쁘게 재작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표현한 국보 이미지들을 정형화된 기성용지에 찍어 내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무늬 비닐 봉지나 주름진 천과 같은 생활용품들에 찍어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의 흔적들을 물건들에 남기게 됩니다. 윤하민은 생활의 흔적이 남은 물건들에서 또 다른 여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여백 사이에 예쁜 국보를 채워 넣습니다.

위의 두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윤하민이 말하는 여백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하민에게 여백의 공간은 우리가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상호영향력입니다. 상호영향력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강력한 상호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통보다는 불통이 많아지고, 최망 보단 최질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 안에서 불통이 팽배하면서, 우리들의 상호영향력은 우리의 것이 되게 보다는 남의 것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제도과 대중간의 상호 접근성을 높였지만, 오히려 제도는 군사 정권시대 때보다 더 교묘하게 대중의 뜻을 왜곡하거나 묵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윤하민이 인지하는 현대사회의 기본적 소통이 부재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하민의 마지막 사냥전리품인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 전제는 하나를 위하여는 작업을 통해 예쁜 오조품 옷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윤하민이 만든 옷들은 오조품이기에 창의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조품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기술이 시작될 뿐입니다. 예쁜 색으로 만들어진 오조품 옷들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에프다' 라는 단어는 15세기 '어엿브다'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당시 '어엿브다'는 '아름답다'나 '귀엽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았고, '딱하다' 또는 '불쌍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통보단 불통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예뻐야 할 것들을 예쁘게 만들어내야 하는 작가의 실정인, 우리에게 웬지 모를 슬픔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윤하민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여백들이 모두 예뻐질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그동안 사냥한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윤하민이 사냥한 전리품들을 보면서, 하나는 전제를 위한 전제는 하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미를 주는지에 대하여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태림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아트 스페이스 플)

작가인터뷰
윤하민

1983년 서울 생
2007 계원조형예술대학 '패션예술학과' 졸업

주요 프로젝트
2006 미디어아트 / 계원조형예술대학
2008 커뮤니티커뮤니티 / 아르코 미술관
2008 디자인올림픽 / 올림픽경기장
2010 서교학실 / 상성미술 갤러리
2011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 전제는 하나를 위하여 / 골목

110-803 서울시 중문구 구기동 56-13
T 02, 396, 4805 F 02, 396, 9636
altpool@altpool.org
www.altpoo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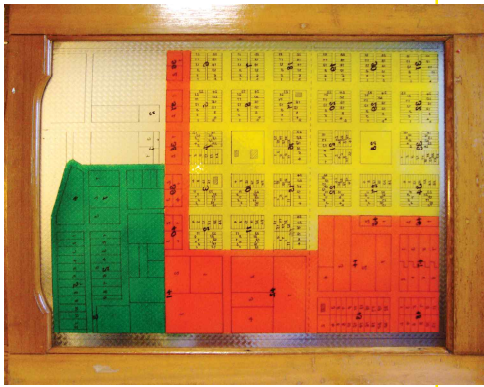


세정 우버
요양반

Whoever may hunt

art space pool
8 May-24 June 2012

opening reception: 6PM 8 May art space pool



Stained Glass,
2012, printed on window, dimensions variable



National Treasure,
2012, silk screen, dimensions variable



One for All, All for One,
2012, sentences yunhamin wrote on the place of residency during he's on the work, dimensions variable



Bear to America,
2012, image which is captured from the nation advertising video @Bp prints on the paper, dimensions variable

In 2012, Art Space Pool presents the solo exhibition of yunhamin *Whoever may hunt* 8 May-24 June as the second exhibition of 'Pool Production'. Born in 1983, Seoul, yunhamin had started the series of the same title when being greatly touched by a phrase in a documentary film on animals, 'whoever may hunt, they all share the food.' This means everybody has a symbiotic, mutually influential power. Therefore, a community that allows its members to live together through hunting is an altruistic community where an individual lives for the group and the group lives for the individual. If we understand the groups of communities as the modern society, we wonder what this society looks like. Historians often use the hunting culture as the analyzing tool for studying life in the primitive days. The reason is that hunting is not simply an action to satisfy hunger but includes various phenomena related with social class, politics, economy, religion, etc. Therefore, yunhamin's notion of hunting does not comprise of simply collecting materials but of a process of outwardly expressing the gap between an ideal society and the modern society.

First of all, the series *Stained Glass*, 2012 has sprouted from the visit paid by yunhamin to a village where only its ruins are left due to urban renewal. The artist has picked up windows among the ruins and has copied maps onto these windows which are painted in pretty colors. In the maps drawn on the windows, we can find the places where we live in. However, these spaces are somebody else's at the same time as they belong to us. Furthermore, the space left with ruins is an empty space without any function until the completion of the renewal construction and this very moment alone allows us or them to be the owners of this left space. Perhaps, yunhamin has collected the windows out of reminiscence, resenting this empty space that will soon be filled with tall buildings. The artist must have felt the urge to decorate the windows, the hunted left space, by drawing maps and painting them. In the similar context, the series *National Treasure*, 2012 again talks about empty space in the daily life of yunhamin. The so-called national treasures designated by the state are also ours and theirs. The artist has created the beautiful series by dividing the space expressed as national treasure with unclear image of it and the space without such treasure, through silk screen method. The images of the national treasures expressed by the silk screening are not printed on typical factory-made paper but are printed on daily products such as flower-printed plastic bags, pleated cloth, etc that can be easily found in everyday life. In our daily routine, we naturally leave things with traces of living on them. yunhamin feels another sort of empty space within these things with such traces. And in between these spaces, a pretty national treasure fills the gap.

With the aforementioned two series of work, we could now think about what kind of empty space yunhamin intended to express. An empty space for yunhamin is mutual influence that we encounter in a society. Mutual influence is given through communication. Modern society has a powerful mutual influence due to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Despite such progress in technology, there are more cases of miscommunication than communication without problems and frequent incidents that make us feel despair rather than hope. While miscommunication spreads around the society, our mutual influence becomes somebody else's rather than becoming ours. The amount of progress achieved in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surely facilitated the mutual approach between the system and the public but it is unfortunate that the current system seems to artfully distort the public's intention or ignore it even more than the days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erefore, the modern society perceived by yunhamin can be understood as the society lacking basic communication.

yunhamin's last hunting reward *One for All, All for One*, 2012 displays pretty fake clothes. Since they are imitations, creativity is not required. The labor and skill to make the fake clothes are simply visualized. The fake clothes in pretty colors make us cheerful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ke us feel a certain unknown sadness. In fact, the word 'pretty' in Korean has as its origin, the 15th century word called 'eo-yut-buda' meaning 'pitiful' rather than beautiful or cute. In the current society we live in, full of miscommunication than understanding, the artist's feelings formed while making pretty things pretty, somehow make us sad without knowing why. Nevertheless, yunhamin tries to show us and share with us the booty hunted down, hoping that all the empty left spaces that exist here and there in our lives could become beautiful. When we view these hunted materials in front of us, we could ponder on the meaning of one living for all and all living for one in the modern society and question whether this meaning gives us any meaningfulness.

Taerim Hong (Assistant Curator, Art Space Pool)

Artist Biography
yunhamin

1983 Born in Seoul
2007 Graduated from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Department of Media Art

Major Projects
2006 Media Art /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2008 Community Community / ARCO Art Museum
2008 Design Olympic / Olympic Stadium
2010 Soogyok / Saengnamdang Gallery
2011 One for All, All for One / Ccuil Pool